

KIA, SSG·LG 상대 개막 원정 5연전 '강행군'

2026 프로야구 3월28일 '플레이 볼'…KBO, 정규시즌 일정 발표

KIA, 어린이날 포함 홈 73경기…6월 수도권 원정 9연전 시즌 흐름 좌우 '체력 안배·로테이션'…초반 페이스 관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2026시즌 일정이 공개됐다.

개막 원정 5연전으로 출발하는 초반 구도부터, 전반기 최대 고비로 꼽히는 6월 수도권 원정, 홈 73경기 체제까지 시즌의 큰 틀이 드러났다.

KBO는 2026 KBO 정규시즌 편성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새 시즌은 팀당 144경

기씩 총 720경기로 편성되며, 내년 3월28일 개막한다.

전체 시즌 구조를 보면 KIA는 홈 73경기, 원정 71경기를 치른다. 팀 간 이동거리와 마케팅 요소를 고려한 격년제 원칙에 따라 KIA를 비롯해 LG, 삼성, NC, 기아이 훈 73경기 체제를 적용받았다. 광주 홈경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즌인 만큼, 흐름 관리가 순위 경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월별 홈·원정 경기 수를 보면 3~4월 29경기를 시작으로 5월 27경기, 6월 24경기, 7

월 23경기, 8월 26경기가 배치됐다. 9월에는 미편성 경기를 포함해 9경기가 남아 있다.

개막 2연전과 올스타 휴식기 직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가 3연전으로 편성돼, KIA 역시 3연전 중심의 흐름 속에서 시즌 레이스를 이어가게 된다.

KIA는 개막 2연전부터 원정에 나선다. 2025시즌 최종 순위 상위 5개팀의 홈 경기로 꾸려진 개막 시리즈에서, KIA는 인천 문학구장에서 SSG와 시즌 첫 두 경기를 치른다. 이어 31일부터는 잠실에서 LG와 주중 원정 3연전을 소화한 뒤, 4월 3일부터 광주에서 NC와 시즌 첫 홈 3연전을 갖는다. 시즌 초반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다.

개막과 동시에 원정 5연전으로 출발하는 구도는 KIA의 시즌 초반 운영을 기준하게 하는 지점이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이동과 적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초반 페이스가 관

건이다.

전반기 일정 가운데 눈에 띠는 지점은 5월과 6월이다. 5월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광주에서 열린다. KIA는 홈에서 한화를 상대한다. 광주 어린이날 경기는 매 시즌 흥행 카드로 꼽히는 만큼, 흐름 팬들과 함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6월에는 시즌 최대 고비가 기다린다. 6월 19일 kt와의 수원 3연전을 시작으로 SSG(문학), 두산 베어스(잠실) 3연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원정 9연전이 예정돼 있다. 무더위 속에서 치러지는 장기 원정인 만큼, 체력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열린다.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휴식기가 주어지며, KIA는 7월 16일부터 SSG와의 인천 4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한다. 체력 관리와 로테이션 운용이 중요한 시기에서 치러지는 4연전은 후반 기 초반 흐름을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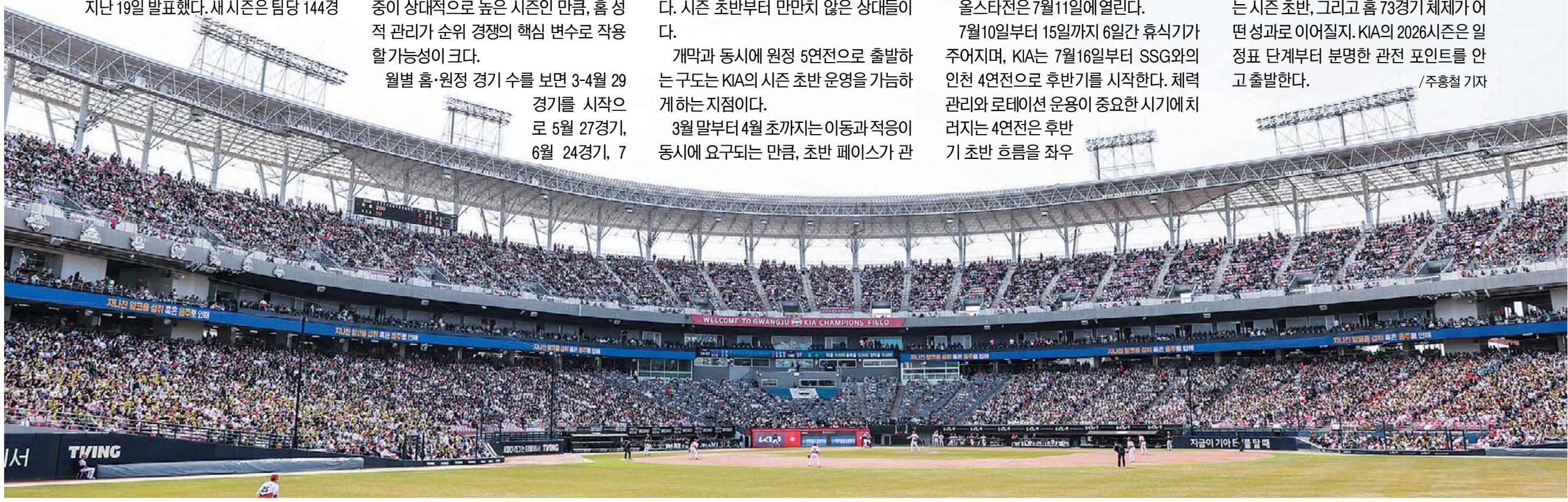
할 변수로 꼽힌다.

8월은 가을야구를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홈 15경기 원정 11경기가 배치된 이 시기는, 흐름 팬들의 응원 속에서 2년 만의 포스트시즌 도전 가능성을 기울이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KIA의 2026시즌 일정은 특정 시기에 부담이 집중되기보다는 비교적 고르게 배치됐다. 다만 ▲개막 원정 5연전 ▲6월 수도권 원정 9연전 ▲올스타 휴식기 직후 4연전 ▲가을야구 분수령이 될 8월 홈 경기 등 균형적인 지점들이 시즌의 리듬을 좌우할 전망이다.

문학과 잠실에서 출발해 광주로 이어지는 시즌 초반, 그리고 홈 73경기 체제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KIA의 2026시즌은 일정표 단계부터 명확한 관전 포인트를 안고 출발한다.

/주홍철 기자



광주FC, 이정효 감독과 '4년 동행' 마무리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지…구단, 차기 감독 선임 절차 착수

프로축구 광주FC가 이정효 감독과 4년 간의 동행을 마무리한다.

광주는 이정효 감독의 중도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효 감독은 지난 12일 구단에 계약 해지를 입장문과 함께 공식 요청했으며, 구단은 법률 검토와 내부 종합 검토를 진행한 뒤 감독 본인의 확고한 의사와 계약상 절차를 존중해 이를 수용했다. 구단은 21일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정효 감독은 2022년부터 광주FC를 이끌며 3년 연속 K리그1 진류를 이끌었고, 코리아컵 준우승과 ACLE 8강 진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구단은 공격적인 전술 정체성을 확립하며 팀 경쟁력을 끌어올린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정효 감독은 "광주FC에서 팀 구축과 전술 목표를 이뤘다"며 "이번 결정은 금전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은 무대에서 한국 축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라며, 광주FC 강기정 구단주 등 관계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함께 전했다.

광주는 즉시 차기 감독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재정 여건과 시민구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존의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 철학을 계승하거나 이를 보완해 성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구단은 국내외 후보군을 압축한 뒤 구단주 보고와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의 2026시즌 선수단 운영은 큰 틀에서의 기조를 유지한다. 구단은 이미 주축 선수 중심의 최계약 협상을 상당 부분 마무리했으며, 이적시장을 통한 수의 구조와 유소년·신인 자원의 단계적 1군 편입을 병행할 예정이다.

무리한 영입을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중심의 팀 운영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구단 관계자는 "이번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시민구단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전남장애인체육회장상 수상

심영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차장, 업무 유공자 표창

전남장애인체육회장상' 이윤리(안도군 청)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수상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9일 이천선수촌 대강당에서 2025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시상하고 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대회 첫 메달(2위)의 주인공인 이윤리는 꾸준한 경기력으로 국내·외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남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윤리는 "앞으로는 개인의 성과를 넘어 전남장애인체육 발전에 작게나마 힘이 되는 선수로 남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영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차장은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

심 차장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남선수단이 역대 원정 최고 성적인 종합 7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쳤으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과 선수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영진 차장은 "모든 선수와 지도자, 전남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정진원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윤리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21일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이 시상식이 끝난 후 왕조이와 환하게 웃고 있다.

/AFP 연합뉴스

'셔틀콕 여제' 안세영, '왕중왕'

‘단일 시즌 최다승 타이·최다 상금·최고 승률’…화려한 피날레

왕조이 꺾고 파이널스 제패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올해 마지막 대회인 왕중왕전을 제패하고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에 도달했다.

안세영은 21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조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무려 1시간 36분 간의 혈투 끝에 2-1(21-13 18-21 21-10)로 물리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시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남녀 통합 한 시즌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에 11차례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9년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타 겐토에 이어 안세영이 두 번째다.

안세영은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비롯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

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을 밟았다.

아울러 안세영은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인 94.8%를 달성했다.

올해 안세영은 단체전인 수리로만컵을 포함해 총 77경기를 치렀고 그중 단 4번의 패배만 허용하며 경이로운 수준의 무패행진을 펼쳤다.

상금 부문에서도 신기록이 탄생했다.

대회 우승 상금 2만달러를 더한 안세영은 시즌 누적 상금 100만3천175달러를 기록, 역대 배드민턴 선수 중 최초로 '시즌 상금 100만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왕조이와의 상대 전적에서 16승 4패의 절대 우위를 점했다.

특히 올해 펼쳐진 여덟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기량 차를 입증했다.

/연합뉴스